

연말 퇴직연금 소급 방안을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모두 발언

2023. 8. 3. (목) 15:00

금융감독원(11F)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 용 감 독 원

수석부원장 이명순

I 인사말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명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간담회 개최 배경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17년말 168.4조원 → '22년말 335.9조원('17년 대비 99.5%↑)

국민연금 '17년말 621.6조원 → '22년말 890.5조원('17년 대비 43.3%↑)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23.6월말)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예)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 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 등 발생

이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정책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모여
금융권이 먼저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통해
연말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실행의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 '23.7.26.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참고

Ⅲ 금융권의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실천

먼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적립금의 만기 분산 및

퇴직연금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금융회사는 다양한 만기 상품의

출시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V 맺음말

작년 말 금융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후 세계적 긴축 과정에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많은 비용과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현재도 경기 둔화 우려 등 다양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퇴직연금 자금쏠림 리스크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해주실
퇴직연금 만기 분산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제도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